

충남도, 27개 기업과 1조5303억 규모 합동 투자협약 맺어

기업 투자 총 면적 56.8만㎡
1811명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생산 1.9조, 부가가치 8321억

충남도가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업이 투자하는 도내 8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 투자 총 면적은 총 56만8672㎡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도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천안에는 안산에 공장을 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으로,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



충남도 합동 투자 협약.

소 제조업체인 삼영순화는 천안 제5일반산단에 98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업체인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테크노파크 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한다.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투자해 성거일반산단 생산 시설을 늘린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진공펌프 공장을 새로 짓는다. 화장품 원

료 제조업체인 아이앤씨바이오는 150억원을 들여 이산단 5859㎡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는 에스케이온이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제조 설비로 교체한다.

오도밸리 일반산단에는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기업 에이치브이엠이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늘린다. 자동차용 전선 제조업체인 경신전선은 635억

원, 변속기 부품 제조업체인 무봉은 287억원을 투자해 역시 공장을 증설한다.

논산에서는 리튬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가야곡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더한다.

도는 이들 기업 투자로 생산 1조9200억원, 부가가치8321억원, 고용 1만247명의 유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앞으로 이들 기업 투자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힘쓰고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충남의 가능성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이들 기업 투자가 8개 시군의 산업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충남의 균형 성장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경주시, ‘韓-중앙아 협력포럼’ 유치 박차

‘韓-우즈벡 지방정부 협력포럼’ 서
주낙영 시장, 경주 개최 의지 밝혀

경주시는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 유치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해 2027년 제4회 포럼의 경주 개최 의지를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지방정부 대표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경제·산업과 투자,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환영사에서 경주와 우즈베키스탄 간 교류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11월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이어 내년 제4회 포럼을 경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주시는 2013년 양국의 고도이자 실�크로드 거점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사마르칸트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대학 간 학술교류, 아프리카 시업 궁전벽화 실감콘텐츠 개발, 사마르칸트시 공무원 경주 연수, 관광·경제교류단 상호 방문 등을 이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카슈카다리아주 경제사절단이 경주를 방문해 에너지·환경·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경험과 사마르칸트시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중앙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사마르칸트와 1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을 경주에 유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무안군, 12월까지 관광객 경비 50% 지원

평일 1박 숙박·관광지 2곳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관외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6 갯벌썩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전신청 관광·방문객이다. 여행 전 사전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관내 숙박업소에 체크인해 1박 이상 숙박하고, 무안항토갯벌랜드를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

문해야 한다. 1박형과 연박형 모두 최초 체크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체크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형은 1박형과 2박 이상 연박형으로 나뉜다. 1박형은 관내 인정 지출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연박형은 인정 지출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2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며, 환급액은 각 유형별 한도 내에서 인정 지출액의 50%로 산정한다.

/무안(전남광주)=양수영 기자

분청문화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고흥 운대리 출토 분청사기 등 선배

전통 분청사기부터 현대 작품까지, 분청사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전북 남원시 소재 남원향토박물관에서 오는 9월 17일부터 ‘K-컬처의 맥(脈)’, 분청사기를 함께 걷다’ 순회전시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흥의 분청사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 박물관 간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부터 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수상작, 박물관 입주작가 작품 등을 선보인다. 500여 년 전 생활 속 그릇에서 시작해 오늘의 창작으로 이어지는 분청사기

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 도공들의 제작 기술과 자유로운 표현을 살펴보고, 현대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분청사기 기법이 오늘날 작가들의 새로운 시선과 조형 감각을 만나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이번 순회전시와 함께 9월 18일부터 시작하는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도 참여해 박물관과 고흥 분청사기를 알리고, 고흥의 문화유산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고흥과 남원을 문화로 잇고, 분청사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이 오늘의 창작을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분청사기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흥(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의회, 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대상 기관, 출연기관까지 포함

부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장이 앞으로 부산시의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해 11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난다.

청문을 맡는 위원회도 기관 특성에 따라 이원화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개 기

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는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14개 기관은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기관별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기관장 공백과 인사청문 대상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대상 기관과 청문 방식 등을 재검토한 뒤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조율해 낸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지역 대학생 207명에 장학금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인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과 주민 자녀 중 대학생 207명에게 총 2억 3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은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성본부는 주변지역에 만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이나 주민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거주기간·학점·재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오는 20일 ‘세븐브릿지 투어’

부산 도심의 해상교량을 달리는 자전거 축제인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오는 20일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연결해 달리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자전거 투어행사다. 올해는 국내외 라이더 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체 코스는 총 77km로 벡스코에서 집결 후 광안대교를 출발해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를 거쳐 공항로 일원에서 반환한 뒤 다시 벡스코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추석 여객운임 최대 30% 할인

경북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가족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귀성객 여객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할인 기간은 23~28일 6일간이며, 포항~울릉 노선을 운항하는 울릉크루즈의 뉴씨다 오픈호와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참여한다.

뉴씨다오픈호는 6인실 IN·SEA실·4인실 IN실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의 20%를,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전 좌석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신청은 16~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귀성객은 해당 여객 선사에 여객선표를 예약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릉(경북)=김진곤 기자

창녕군

‘韓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올해 처음 도전해 전국 지자체 군부 및 경남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우수 지식행정 사례를 발굴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이룬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2012년 제정돼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에는 213건이 접수돼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